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 3: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로 편집국장: 조근권

출발! 단기선교 복음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찬양예배는 선교팀 파송예배로, 중국1팀 6월 20일 첫출발

'98 여름 단기선교가 시작된다. 지난 겨울 선교수련회로 달구어진 기도의 불씨들을 모으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모아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땅을 향하여 젊은이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찬양예배는 그들을 위한 파송예배로 드려진다. 이 복음의 문은 청년2부가 중심이던 중국1팀(단장 송환장 장로, 지도 전형준 목사, 대원 이신동 집사 외 6명)이 연다.

중국1팀은 6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 5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 29일 다시 서울로 향하기까지 한쪽 및 석백옥, 몽골족 등 소수민족과 사회화교회를 정밀 탐방하면서 선교의 접촉점들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팀을 3개조로 나누어 흩은 후, 각 팀별

로 소수민족들을 찾아 선교적 가능성을 탐방하고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후 다시 일정한 약속 장소에 재집결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없는 지역을 찾아 중국어 성경을 전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국1팀은 선교적 목표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매주 월, 토 선교기도회를 가지면서 중국 선교 세미나 및 중국어 학습, 전락의 등을 을 실시해 왔다.

충현의 성도들은 이 단기선교 첫 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한편 6월 25일과 27일에는 각각 방글라데시팀과 수단팀이 선교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98 하기 농어촌전도대

교구 및 청·대·고에서 총 45개팀 확정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기치 아래 98년도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팀이 확정되었다.

7-8월 두 달에 걸쳐 계속될 농어촌 전도대는 교구 17개팀, 고등부 2개팀, 대학부와 청년1부 각 13개팀 등 총 45개팀이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갈 지역들은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부산, 제주, 충남 및 낙도 등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전도위원회 산하 농어촌전도부는 이번 전도대 파송을 앞두고서 6월 21일과 28일 두 회에 걸쳐 김필수 목사(청년1부, 전도위원회 지도)를 강사로 하여 전도대원 교육 및 기도회를 갈라려움에 실시할 계획이다. 7월 5일 찬양예배는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번 하기 농어촌전도대의 사역 일정과 대상교회, 사역내용, 위치 등은 아래와 같다.

전도대	일 정	대상교회	사역내용	위 치
교구				
1		행곡교회(이철순 목사)		강원도 원주시 행곡동 18
2		미산교회(김찬국 목사)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용지리
3		우정교회(이태권 목사)		강원도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
4		가곡교회(이준식 목사)		강원도 원주시 지평면 가곡리
5		세종장교회(김덕연 목사)		충북 청원군 강변면 장동3
6		신원교회(김경기 목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원리 788
7		세소양교회(서정수 목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동천리
8		전원교회(민규식 목사)	전도활동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9	7-8월중	사리교회(이재식 장도사)	성경학교	경북 곡성군 우보면 도산리
10	심사	인제부흥교회(이종만 목사)	미용 및 의료봉사	강원도 인제군
11		북방교회(이영국 전도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방리
12		한성교회(장신환 목사)		강원도 철원군
13		해곡교회(이영국 목사)		강원도 정선군 일제면 용산리
14		홍산강장교회(장재영 목사)		강원도 개령군 남부면 갈곡리 배금2구
15		반곡교회(이종진 목사)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507
16		재봉교회(이성기 전도사)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대성리
17		금성교회(장원길 목사)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2리
청년1부				
1팀	7. 20-23	죽도교회(이현철 전도사)	전도, 성경학교	경남 통영시 한신면 대곡리 455-2
2팀	7. 20-23	방학교회(김종옥 목사)	기도회, 전도	경남 거제도 통덕면 방학리 537
3팀	7. 26-30	구림교회(이준호 목사)	전도, 교회와 농어촌 일꾼들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4팀	7. 26-30	용호교회(김두우 목사)	전도, 교회와 농어촌 일꾼들	전남 함평군 용호리 905
5팀	8. 2-6	서곡교회(박영숙 목사)	전도, 교회와 농어촌 일꾼들	경남 함안군 창곡리 342-1
6팀	8. 2-6	관리교회(장원철 목사)	교회 일꾼들 돕기	경남 통영시 신장면 관리 157
7-13팀	8. 11-14	상리교회(홍기순 전도사)	교회와 농어촌 일꾼들 돕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리리
대학부				
1학년	7. 20-23	신암교회(유순근 목사)	농활	강원도 여주군 장호면 도전2리 894
2학년	7. 20-25	대백면동교회(최관만 목사)	집짓기, 입구자경 전도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59-15
3학년	8. 10-15	외솔교회(임경호 목사)	집짓기, 입구자경 전도	경남 진주시 명석면 외솔리 896-1
4학년	7. 27-31	해성교회	농활, 성경학교	충남 서천
5학년	7. 27-31	마한교회	성경학교	강원도 원천
시심나	8. 3-6	성근교회(송재근 목사)	농활, 성경학교	전남 남원시 아영면 인원리 681
동백개	7. 27-30	해신원	성경학교	전북 정읍시 정읍면 동백개
문지기	7. 20-23	가곡교회(최석주 목사)	농활, 목수전도, 전도	충북 충주군 가곡면 누리리
아름답	7. 28-30	송원교회(정기영 목사)	장제인수련회 봉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NMC	7. 27-31	남부면교회(김동식 목사)	행진 전도	부산시 서구 남부면 3동 300
낙도전도	8. 10-14	연흥교회(이현호 목사)	낙도 전도	전북 고창군 고신면 고창동
봉곡방	8. 3-6	새생명교회(장정규 목사)	농활, 전도	충북 음성군 음성읍 조천리1구 1345
인투스	7. 28-1	신원교회	농활, 성경학교	제주도
고등부				
1팀	7. 20-24	화도교회(신수영 전도사)	전도, 성경학교	경남 거제군 통덕면 송림리
2팀		야구교회(김필수 전도사)	현장 사역, 목회 봉사활동	경남 거제군 통덕면 송림리

98년도 전반기 장로수련회

6월 15일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올 전반기 장로수련회가 6월 15일(월) 저녁부터 17일(수) 오전까지 2박 3일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실시된다. 당회원들의 영적 훈련과 주님의 몸된 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자 실시하는 이번 수련회에는 주재수강생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이다' (시 18:1)이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회, 특강 외에도 자유담당회, 그룹들의, 종합토의 등 대회의 시간들을 통해 당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종합하

는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예배 및 특강은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당하게 되며, 특강II는 최훈 목사가 '교회 봉사의 원리'를 제목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룹 및 종합토의의 시간은 충현교회의 4대 목표를 주제로 하여 진행시킬 예정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교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당회원들이 금번 수련회를 계기로 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의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지속하여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야 하겠다.

동서울노회

'98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6월 22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8)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동서울노회 98년도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우리 교회에서 거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각 부시별로 참석할 교사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선택하여 수강등록 권고하고 있다.

교사뿐만 아니라 충현의 성도들은 금번 강습회를 '기도로 배우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도록 돕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지원해야 하겠다.

고 강봉수 장로 교회장

교회장으로 치르어진 고 강봉수 장로(53세) 장례식이 지난 6월 8일(월)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 앞뜰에서 거행되었다. 고 강 장로는 94년 10월 제28대 장로에 장립된 후 교구와 교회학교 등에서 섬겨온 중 지난 6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김창인 목사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경고

(이사야 22:1-25)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망한 원인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매를 맞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것까지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회개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죄를 범하고 죽는 시간까지 먹고 마시다가 망하였습니.”

1.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1절)
이상 골짜기에 예루살렘을 가리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산들로 싸여 있어서 골짜기가 많습니(렘 21:13, 골짜기의 거민).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에는 기온 골짜기, 남서쪽에는 르마임 골짜기, 남동쪽에는 한논의 골짜기, 북동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처럼 감싸여져서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이방 풍속에 물들었습니다. 게다가 장차 앗수르의 산해림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 이것이 경고를 받게 된 배경입니다.

2.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현상이 어떠한가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도시와도 같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사의 복을 받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멸망할 수가 있었습니까.

(1) 지붕에까지 도망치도록 위급하게 망할 것입니다(1절)

원수가 쳐들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원수가 물밀듯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 안의 모든 시민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 사람들이 도망가야 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도망을 가보다가 잡혀 죽는다는 말입니다.

(2) 군사들이 싸움도 못해 보고 멸망한 것입니다(2절)

“떠돌던 성”이란 말은 세상의 세력잡은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며 호령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음을 세상과 물결에 다 팔아 먹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떠돌며 찬송을 부르던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는 것기에 배반 드린다고 떠돌았습니. 이렇게 떠돌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워하던 고을”이란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무서운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할까?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2절)

예루살렘의 수많은 시민들이 전쟁의 칼날에 죽는 사람은 없으나 도망치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 가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3) 관원들이 도망을 치다가 잡혀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3절)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3절)

3.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이사야의 탄식이 어떠한가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진하도록 통곡합니다(4절).

4.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5-7절)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니 예루살렘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

(2)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뻗었으므로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8-11절)

예루살렘이 이사야의 시대까지 평안한 것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전쟁 준비를 잘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든든하여 원수가 손을 못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날개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죄를 많이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거두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율타리를 치고 있던 성읍들이 앗수르 군대에 기습받지 않아 이상 그들의 온신체가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포도원에 있는 원두막같이 홀

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병기를 정비하고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저수지를 만드는 등 자신들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였습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방법에만 신경을 썼습니.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 수물 가운데 있는 무기창고를 보아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니 자기들이 준비했던 모든 무기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3)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12-14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신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뜸으며 굶는 배를 따라 하십시오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라”(12-13절)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망한 원인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마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매를 맞을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것까지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거민들은 회개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죄를 범하고 죽는 시간까지 먹고 마시다가 망하였습니.

5.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지도자들의 죄가 어떠한가

(1) 셸나이의 죄가 어떠한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요실을 썼으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요실을 썼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기초를 쏘아내었도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장이 행렬히 던지되...”(15-19절)
유다의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인 셸나가 자기의 안전한 생각하고 속셈 채우기에 바빴습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했으며, 권리를 남용하여 백성을 착취하고 왕동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습니.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임을 통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셸나를 폐하시고 셸나가 입었던 옷과 그가 입었던 띠와 그가 취했던 권리를 헬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넘기셨습니다.

셸나를 광야에 쫓겨나서 죽였는데 장래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대신 헬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국무총리 겸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2) 엘리야김의 죄가 어떠한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것이 사옥이니 그 곳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나 여호와와 말이니라”(20-25절)
엘리야김은 초기에는 아버지의 성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21-22절).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다투어 열쇠를 주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는 절대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의 말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실인사로 나라를 망쳤습니(23절). 엘리야김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의 권세가 당당하게 되고 모든 백성의 신용을 얻게 되었을 때에 정실인사를 했습니다. 조카에게 장관의 자리를 주고, 사위, 사촌, 사돈의 딸은, 동창생, 친구를 모조리 불러서 한 자리씩 주었습니. 이처럼 거문의 친족들이 엘리야김의 그늘에서 세도를 부리게 되니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김이 못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측근들이 못된 것을 하니가 마침내 모든 것이 엘리야김에게 쇠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김의 것이 너무 무거워졌습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타락하면 정계가 입한다든 사치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에 자신이 범죄한 것만큼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간이 환난을 당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날개가 떠났으므로 망하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로, 어려움을 면하는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로, 권세가 있다고 백성을 멸시하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남용하는 자는 나라를 망치다가 자기도 망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



김성곤 목사

그 이름

(출애굽기 3:15-16)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깨달아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애굽에서 압박받던 백성들에게 나타난 막연한 신성에서부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선구자 전체 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역시 이와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넘어서는 귀중한 신적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있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3:6).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며 그 사람의 신분보다는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름은 우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름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의 뜻은 개인의 천성이나 성격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은 편의대로 만들어지는 단순한 단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의 성격을 각자하여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만든 이름은 극히 드물습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본성과 인간과 갖는 그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을 보면, 이제하여 내 이름을 붙여주고 야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그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니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15절). 첫째로 여호와

는 ‘주’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옛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지닌 옛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14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느니라”(16절). 그분의 이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여 절대적인 권세 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다가가았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의 신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도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은 매우복적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상상속에만 있는 허구적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리석고 가치 없는 우상과는 차 별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의 백성에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함께 하시며 절정중이나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잠잠할 때에도 늘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위대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듯이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혹은 여호와와 동일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11). 아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살았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 8:58).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이유와 필요성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구원이 만세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고요명사 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생각속에 자리했던 이름, 하나님을 잘 묘사한 그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놀라운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

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었으며 그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아무도 그 이름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을 돌아보시며 먼저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진실로 위대하므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처럼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막 11:24).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과 권능,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멋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이름이 으뜸이 되시는 권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각지에서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그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시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깨달아 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

중국대륙을 주께로!

중국 1단기선교팀 제공

개방의 물결이 소용돌이치지만 여전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중국 선교의 문은 아직도 굳게 잠겨져 있다. 중국은 미지의 나라다. 정부는 중국 인구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학자는 문자(文字) 수가 몇 개인지 모르며, 요리사도 요리의 가짓수를 모른다는 나라이다.

우리들은 흑암의 땅, 중국 대륙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6월 20일 장도에 오르게 된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믿으면서 출발 길에 오르게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기도에 주세요

1.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지도하시어, 하나님 나라 부흥의 영적 정답대가 되셨나이다.
2.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겠나이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3. 사역에 임할 때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4. 정답하게 될 동북3성 지역과 학복성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소서.
5. 선교지의 9개 종족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어.
6. 준비과정과 사역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강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만을 맺게 하소서.

7.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순환장 장로, 전형준 목사, 이신동 집사, 백명자 집사, 황윤성 집사, 서수길 형제, 주만호 형제, 김명섭 형제, 정성수 형제)

◎亲爱的中国弟兄姐妹们你们好!◎

你们远渡重洋和亲人, 在异国他乡一定很辛苦吧! 在语言上, 生活上, 工作上都有不少的困难和不便吧! 特别是周周和礼拜天, 尤其感到孤独和无所事事! 我们在这里会尽我们所能帮助大家, 给予真诚的帮助和温暖。

你们在这里教会, 将体验到如同福音的甘甜, 福音和喜乐, 福音和祝福的生活, 新的生活, 新的生命, 新的自我, 你们的人生必得新的, 前所未有的, 决定性的重大转变, 我们热切地期待着, 并衷心地祝愿你们来亲身能体验到这一切!

我们是主耶稣你们的福音和福音的见证人, 也许你们现在对基督教还不太了解, 也许你们对福音和福音的态度, 甚至地有怀疑, 但这是很正常的, 我们不需要你们来求我们进行一次辩论, 一同建设人与人之间之沟通, 彼此建立信任, 发现福音的真实的喜乐, 我们除了爱你们的真诚, 和爱你们的灵魂之外, 别无它求, 别无它图, 别无它愿。

亲爱的中国弟兄姐妹们, 你们难道不需要爱吗? 难道不需要爱我们吗? 爱是我们一切的动力, 也是我们一切的动力之源, 而且爱是唯一的力量, 我们只不过爱你们的使者, 爱你们而已。

亲爱的中国弟兄姐妹们, 你们难道不需要爱吗? 难道不需要爱我们吗? 爱是我们一切的动力, 也是我们一切的动力之源, 而且爱是唯一的力量, 我们只不过爱你们的使者, 爱你们而已。

願 神引領你們, 願 神的恩典與你們同在!



主日教会礼拜天中国活动时间:
礼拜天及平安夜: 上午 9 - 10:40, (休息午餐)
感恩节: 11月 23 - 24日, 感恩节: 11月 23 - 24日,
“汉中(山南)区三团 660-1, (二) 地区级三团在教区总部”

▲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위원회에서 제작한 전도서.

단기선교 이모저모

김성관 목사님, 단기선교팀과 함께 하다

6월 5일 금요일을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과 수단을 비롯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가는 참가자들이 만났다. 위임목사님과 이빈 만남은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단기선교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낮선 땅이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국인 선교사와 연결하려 했던 선교팀들에게 “동그라미를 뚫어 세상을 바라보면 동그라미로밖에 볼 수 없어요.”라고 하시며, 선교사를 통하여 이미 짜여진 틀로 각 선교지를 바라보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셨다.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마침내도 불구하고 팀별로 다시 모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급변 단기선교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단기선교 구호물품 가득

단기선교에 필요한 구호물품들 한 한 기사가 주간충전에 게재된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선교위원회는 마치 창고라고 된 물건들이 가득하다. 앞으로라도 계속 구호물품 접수 받자 각 선교지에 보낼 계획이다.

수단을 바라보며

"지난 5월 30일에는 선교위원회와 함께 우리 수단 팀은 산상예배와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서, 또 수단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듯 정제산 정복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려갔다. 그 뿌듯함이란!"

수단단기선교팀 제공



▲ 단기선교를 통해 수단과 교회와 팀원 개개인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고대하며 준비에 헌신인 수단팀.

뿌듯함이란!

또한, 우리는 선교의 훈련으로 개인별 기도과 제정후원자를 찾고 있으며, 이것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비록 짧은 기간의 단기선교이지만 선교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수단 팀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장에서 항열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에는 함께 모여 주사를 맞고, 오고가는 차 안에서 조차도 4명씩 전도 연습(영어)과 관

지난 5월 15일 각 나라별로 단기선교 첫 모임을 시작으로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된 것들이 확정되었다. 다른 나라들(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중국, 몽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단 팀도 이 날을 기점으로 매주 주일 찬양예배 후와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와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수단 팀은 선교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팀으로 다른 팀들과 약간은 구별이 되며, 단장 이창호 장로, 지도 김희복 목사, 총무 박태양 전도사, 정은희 전도사, 김계화 집사, 김영신, 최지영, 안정하, 안해진 자매와 최선호 형제로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별 개개인이 지냈던 선교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 정말로 많은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과 충현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전념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선교위원회와 함께 우리 수단 팀은 정제산에 가서 산상예배와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서, 또 수단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하듯이 비교적 쉬운 산행이었지만 정제산 정복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정복하고 내려갔다. 그

양(영어, 아랍어)을 하면서 준비를 알차게 했다. 같은 날 금요일을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과 수단을 비롯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그리고 우리 팀이 모여서 위임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 막연하고 뿌연 단기선교에 눈을 뜨게 하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새롭게 무장되고, 힘을 얻었다. 말이라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주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의 눈과 미소는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그 말씀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6월 27일 떠나는데 지금처럼 모이다가 마지막 주간에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 영적인 무장과 언어와 찬송 준비 외에 드라마 연습 등으로 실질적인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우리 팀 개개인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불게 하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충현교회에서 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팀은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로 와

6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지치는 세상문화와 그것들을 대항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0동기 이영창

땅 끝에서 ...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끝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25, 2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사 52:7, 8)

문화탐방 당에 우리는 모처럼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해 아내와 함께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 강당에서 예수전도단 부흥콘서트에 갔었다. 국내의적으로 어려움(IMF)에 직면하게 되는 그 시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는 '부흥'이었다.

이 앨범의 전체적인 작사·작곡은 고형원씨가 대부분 맡았고, 주제에 걸맞은 찬양들로 가득(총16곡)하다. 아울러 국내 CCM계의 가수들이 각각의 색깔로 채워져 있다. 가장하게 되고 그 색깔들은 '부흥'이라는 색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땅 끝에서'를 소개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이 지극히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는 우리네 삶의 모습 ...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구속의 은혜를 맞은 이들의 참다운 고백과 선포가 이 노래에 실려 있다. 간결한 메시지, 절제된 멜로디, 사운드를 약기는 '우리'는 문법에서 지탄 받아도 '우리' 같은 범주를 통하는 이성관 씨의 기타 선율, 이우하의 독특한 목소리 ... 느낌!

한때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찾지 못해 산으로 숨어들었던, 학덕구씨의 전도,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이유와 용기를 주셨다고 조용히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접하면서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수גע된 전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들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난다.

이 가사만이 나를 온통 뒤흔든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쫓겨 새우게 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

메인스트림

얼마전 PC통신 접속 중에 제법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다. '메인스트림(문화의 주류)'를 대표한다는 단어 이십여개를 적어 놓고선 이 중에서 알고 있는 단어의 갯수에 따라 그 사람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웃기는 내용이었는데, 누벨마흐, 포스트모더니즘, 리틀리프, 시, 서브컬처, 유희메도 예고 등의 제법 문화스러운 티가 흐르는 그런 단어와 이름들이 나열되었다. 물론 난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한 문화(?) 한 단어는 뭘이든 내심 호호웃지만 마냥 즐겁기만한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취향일망정 동시대를 대표한다는 그 단어들 중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D 313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비잔틴문화가 꽃을 피웠고 6세기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그레고리우스 창가 이리 서양의 클래식음악과 교회미술이 발전되는 영광스러운 문화적 시작이 기독교와 함께 있어왔다. 북쪽 성상의 뿔한 콘제로 동·서 로마로 분열되어 이것이 다시 오늘날의 신교와 구교의 논쟁 양상으로 나타나며 현대 한국 교회에서 우상화의 논쟁으로 유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지만 이런 기독교의 문화적 영향력이 점차 힘을 잃고 유산화의 일상 관심사에서 하나 둘 기호를 잃어간다는 느낌을 십다시 지을 수가 없다.

작년 7월 일제는 극당으로 상영되었던 안노히데타가 감독의 '에반젤리온'이란 애니메이션으로 온통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원래 소재의 면에서 스페일이란 것으로 유명한 일본 로봇 전투물이 영화 이상의 감성을 담아 일본문화의 그 내용과 깊이와 완성도 스페일이 대할 만한 문화비평가들의 비평 자체가 예초에 불가능한 작품이라고 칭하는 등 하나의 문화적 경향을 이룩한 정도로 사회적 세제이상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나도 두서너개는 작품이다. 제목부터 '복음(Evangel)'에서 따온 정도로 '에반젤리온'은 '사도'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괴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아담'이라는 모체로부터 만든 에반젤리온이 등장하는 식의 성경적 용어의 오용과

문화

72동기 김영일

문화,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도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화는 세워야 할 대상이며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문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세상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점이다. 우리가 섬기려 할 한 분야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세상에 문화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방향기를 잡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 아주 멀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영화나 소설이나 TV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로 단맛에 물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단조롭거나 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할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자극적이거나 또는 극적인 것만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다.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당시의 상황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고 자극적인 것만이 선하고 유익하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문화는 특히 멀티미디어에 관계된 것들은 이 점에 앞장 서고 있다. 영화를 예를 들면 요즘 영화는 배우가 빠져서 그런 효과판의 영화나 또는 공포영화 그리고 색성영화만이 살아 남는 것 같다. (물론 몇몇의 반발성의 작품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안겨 줄까? 교회에도 이런 경향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교회화학을 위해 매년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대부분 이런 문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입맛 당기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진리는 늘 그런 자극적인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는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을 소유하게 되고, 늘 온전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우리는 아침에 싱그러운 저녁에 저녁에 대한 향수를 누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레 전에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만물을,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앞에 가슴을 치며 쏟아놓는 적이 있었는가? 문화는 우리에게 새 죄를 가리우고 있다. 폭력은 주인공에 의해 정당화되고, 불륜도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자신감 때문에 언제나저 죄를 지으려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매우 하찮게 여겨 죄도 매우 중대히 여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신실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발을 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TV나 영화를 보며 그 주인공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감상하며 그 죄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에 탐심과 눈짓만으로 우리는 도적질과 간음을 범한건만 우리는 죄악 범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것을 권변하며 또 이것들을 대해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마저 쉽게 포기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만약 바늘에 찔리면 틀림없이 아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 속에서 아파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관한다. 만약 건물의 한 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을 수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인 형제나 자매가 쓰러져 가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문화 오류로 무너지기도 방관한다. 다시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한다. 세상 문화를 향해, 좀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절제롭게 우리의 삶을 차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 제거하고 그 시간과 노력들을 십자가의 감격으로 채워야 하겠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문화에 맞닥뜨리고 재미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날마다 주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투쟁해야 하겠다.

70동기 김중래

끝부분에서는 제림과 부활 그리고 새로운 세상 등의 구원적 내용을 작가 임의대로 바꾸 패러디 하는 등 이 작품 속에서 기독교는 단지 그속의 인간성의 무한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속에서 나름의 신성적 회복까지 강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대의 세대의 새로운 1000년을 담은 세계관을 영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학문화의 주류에 서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우들에 대해 제 역할을 하거나 이기 목소리를 자신감이 너무 작아져서 대학 기독교 동아리들과 월드 캠퍼스들의 승리의 수호신을 자처하며 침체에 빠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그들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젊은 악마' 웅원대를 보면서 평가가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기업의 CI(이미지 통합)사업과 같은 노력에 이제 기독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알리는 일에 사용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수많은 사업 간판 사이에 끼어 있는 교회 간판과 내은 십자가를 보며 신자들이 과연 무엇을 머리에 속하게 할 것인가!

기독교문화를 얘기할 때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고통을 영광이 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신교의 도구로서 음악과 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기독교 예술의 이미징화를 생각할 때 물론그, 비둘기 등의 산뜻한 이미지화를 통한 전도의 효과도 미처하지 않겠다. 우상화라는 논리로, 나태하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할 때 기독교는 작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우리의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문화에 대한 비관적인 용기없는 태도는 도살장에 이르게 된 새끼를 팔고 돌아가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던 마침내 순종하고 끌려가는 소의 모습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의 주님과 하나님

큰언니는
청각 장애인
입니다정 한 나
(대학부 1학년)

"하나님 영미언니한테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언니랑 다시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제목이다. 나예전 감사하게도 언니가 세 명이나 있다. 그 중에 첫째 언니 영미언니는 예바다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이다. 어렸을 적엔 언니가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친구들에게 소귀가 없었는지 몰랐다. 한 번은 내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 학교로 도시락을 가져온 언니가 날 찾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해서 쟁쟁했다가 어떻게 도시락을 건네준 적이 있었다. 그때 그곳은 남자들이기라 "나네 언니 병아리지?" 하며 물었을때 너무 창피해서 울다가 집으로와 언니에게 다시는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그 말이 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초등학교생때 항상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언니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했었는데(지금도 안한지 오래 됐지만) 언니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20여년 동안 한 번도 못해왔던 대화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예전 전화하는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언니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언니를 초중,고를 모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 보내고 서울신학대학까지 보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노력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언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의식중에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곤 한다. 얼마 전에도 우

리집으로 전화한 친구가 "너의 집에 전화하니까 이상한 목소리의 사람이 받아서 끊었어"라고 말하면서 언니에게 다시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동생이 또 있을까. 전화를 끊지 않은 것만 감사하고 기뻐할 못할만정 호러상 처만 했으니 초등학교때부터 여들에게 놀림받고 상처 받았을텐데, 이해하고 감사를 주어야 할 거 아닌가 그것도 제일 어린 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월급날이면 항상 용돈을 주면서 조금밖에 못주시기만하는 쪽지를 남기던 큰언니, 나는 큰언니와 기뻐할 항상 스기만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언니를 사랑하는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20살이 된 지금 이제야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언니에게 말하고 싶다. "언니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많았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언니 말 잘 듣고 마음 안아오게 하는 착한 막내 언니가 될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큰언니를 말할 수 있다. "저의 큰언니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큰언니나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큰언니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그대 사용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큰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언니는 통역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 전화도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

이 정 닢
(집사, 장년부 2교사)

98년 4월 23일 휴복한 봄비 후의 개인 오후, 푸르름을 절제한 계절에 장년2부의 30여명의 교사들이 작년에 이어 양평에 있는 은혜의 집을 방문하였다. 주님의 배려난 쓸쓸을 자랑하는 듯한 칠출산과 흑천의 맑은 물이 아우러진 곳에 있는 은혜의 집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있었다. 정숙스런 작별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듣고 장애인들과 교사들이 잠시 되어 재미 있는 게임과 율동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됨을 서로 확인하며 마음껏 웃음을 토해내기도 한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면서.

말 하나에도 눈짓 하나에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바라볼 때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자 즉 인물이 잘나고 학벌이 좋으며 기쁨이 행했던 곳에 특별한 필요까지 갖춘 인간 승리자들을 부러워하거나 행복할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욕심과 시기과 질투, 경성의식과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성의 고통으로 언어전 열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 조건도 없고 티 없는 순수한 미소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띄워 보내 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은혜의 집 식구들이다. 정박아, 자매아. 대소변을 못가리는 장애인, 24시간 누워서 사는 아이, 뼈가 약하여 부러질까봐 안아줄 수 없는 영양이 부족한 아이, 여러 종류의 장애가 아우러진 곳이라 대개는 그들이 불행하다고 혹은 돈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장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들에게서 참 사랑을 배우게 된다. 눈길만 주어도 기뻐하고, 만져 주면 더 좋아하고, 안아주면 행복하기 터지는 기쁨을 토해낸다. 저돌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세상의 욕심으로 맺어지는 인간의 모습에 드러나 보이는 주님의 피로 거둔나기를 충고하는 듯하다.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자들만 이루어 나뉘어간다.

의도적인 열심과 충성의 배일을 벗고 주님의 참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기지는 바이다.

이만

동방교

정 현 민

(목사, 16교구·장년부·법도전도회·도사경향회 지도)

동방교 창설자인 노광공은 경북 대구 등지에서 있었던 박재선 집회를 따라 다니며 복을 치르며 열광하던 전직 전도사였습니다. 노광공은 그의 아내가 서울 남대문교회에 다닐 때 같은 교회 교인이었던 박재선과 친분이 있어 박재선으로부터 특별 안수를 받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도 '세계의 노광공 목사'라고 선언하면서 최면술과 지압술 등으로 병을 고친다고 선전하여 집회를 가지면서 동방교를 시작했습니다.

동방교의 주요 교리

1. 신관

동방교 경전인 '경화록' 서두는 "한국 땅 평양 상수에서 1914년 1월 13일에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삼존주이신 분이 태어났다"로 시작됩니다. 동방교에서는 노광공을 '여호와'라고 불려 두번째 예수인 여호와임을 주장하는데 '여호와'라는 창세기 22:14의 '여호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교의 신관은 성경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매우 조잡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랑한 노광공을 성부로 하고, 장남 노영도를 아바 조부님, 즉 성자로 하고, 차남 노영구를 아브

니엘 조부님, 즉 성령으로 하여 3위1체 관계를 이룬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성경관

동방교는 외형상으로 신구약 성경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교주 노광공을 미화하고 신격화 해놓은 '경화록'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화록은 성경화된 것이 아니고 설교시에 인용하여 들려준 내용을 신도들이 받아 적은 것인데 그 내용은 교주 노광공의 출생으로부터 신비체험, 이적기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록에 기록된 노광공의 출생과 성장은 매우 신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평원군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상수리에서 출생했다고 한 것은 창세기 22:6, 사사기 6:11 안에 나오는 상수리나루와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비슷하게 꾸며 놓으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3. 구원관

동방교에서 구원은 지성금(至誠金)을 얼마나 바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방교에서는 구원받은 교인을 성민(聖民)이라고 부르는데 성민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지성금을 바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신도를 집을 '빈 집'이라고 부르는데 집에는 있는 모든 것을 노광공에게 바치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집은 철저히 가꾸지 않는 빈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금을 많이 낸 신적에 따라 천원왕국에서 높은 자리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4. 교회관

동방교는 특별한 교회 표시도 없으며 명칭도 청수장, 함평전, 수원장, 수원교 등 고정 이름을 사용하다가 개혁장교로 바꾼 후부터는 사기에 간판을 붙이고 신도들의 출입은 경비원을 두어 통제하며, 외부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임 장소를 '대기처'라 하는데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대기자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방교의 대기처의 특징은 신도들이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연단(행상)을 해서 천을 벌이오는 것을 해야 하며, 성의자는 흰옷을 입고 유행가에 맞춰 만든 성가라는 것을 부르며, 성무라는 춤을 추며, 또 대기처에 들어오는 신도는 믿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고 들어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한 마디도 동방교의 '대기처'는 사교의 집단거주지이며 가족과 같은 곳입니다.

5. 종말관

세상이 멸망할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동방교 교주의 명령에 순종한 자, 동방교를 위해 순교를 자초한 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교주가 승천했다가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자를 휴거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기를 마치며 때때로 동방에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나타나며 특히 해돋는 곳인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노광공이며 노광공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심판날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나 동방교를 믿는 자는 휴거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동방교에 대한 평가

이상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방교는 신관, 성경관, 구원관, 교회관, 그리고 종말관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 하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며, 탈세 심판 이후에 그들은 구원을 얻어 신성한 신자라고 믿고 있는 집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할 이단입니다.

지체들 소식 / 여름 행사 전망

지체들 소식

영아부

주일 아침이면 영아부실을 언제나 깨끗이 청소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바로 김옥희, 이선자 선생님. 바다이며 창문들, 교사실 등 여러 가지 먼지 없이 쓸고 닦으신다. 그래서 영아부실은 주일이면 원하다. 이 두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신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조금도 귀찮은 표정 없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일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 멀리 상계동에서, 상도동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도착하는 시간은 아침 7시 30분. 매주일 똑같은 모습. 참 고맙다. 참 아름답다. (હે재희 통신원)

유아부

4, 5세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 어린이들의 하루하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의 주제가 되게 해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유아부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이번 주에는 신입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유년부의 보배 신입생 선생님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년 전부터 학동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시는 이경숙 선생님, 요즘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군요. 마흔미 선생님 또한 열심히 전도하고서 포근한 인상으로 다른 부서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김명화 선생님은 학원 전도에 무척이나 열심이시며 신입부실을 위해 절기시는 분이세요. 강현주 선생님은 어린이 수송과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 뿐 아니라, 여름·겨울 성경학교 자료집까지 만드시는 다재다능하신 분이시죠. 장지란 선생님은 노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수송을 맡고 계시면서 사신자 관리까지 신경을 쓰실 정도로 어린이 신앙에 관심이 많으시답니다. 이창숙 선생님은 새로운 어린이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 면에서 수고가 많으시죠. 피아노반주로 예배를 도우며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청년 선생님이세요. (김지훈 통신원)

중등2부

"여러분! 화워 위에 돌을 올려 놓고 떡을 굽던 어머니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보낼 때 그 돌을 들어서 이것 먹으라고 주실 어머니가 어디 있었어요?" 주일 후 며칠 지난지만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큰 소리를 내며 함께 웃던 중등 2부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맞아! 어느 부모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보내는 아들에게 '됐다, 이것 먹어라' 하고 배를 주겠어. 6월 14일에 있을 작은 음악회도 그렇고, 잃은 양 찾기도 그렇고 도 그렇고 거기다가 7월 10일 금요일에 최완까지 기도해야 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애들이, 릴레이 금식기도도 좋지만 떡이 먹고 싶은 어린애처럼, 생선이 먹고 싶은 어린애처럼 좀 보내라' 보내봐 봐봐 써 바나라 줄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성애 통신원)

중등3부

♫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지난 5월 31일 중등 3부에서는 '친구 초창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신자를 초청하고 장기 결석자들을 되찾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중등3부 친구들로 구성된 중창팀, 오케스트라, 성악팀, 거기에 멋쟁이 이경진 선생님의 독창, 고등부 신배 아드니엘의 찬조출연까지 더해져 진행되었습니다. 초청되어 온 12명의 대신자, 이미 작정된 150명의 대신자,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중등3부 학생과 교사들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구원을 향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송미경 통신원)

고등부

5월 19일부터 지도 조문한 목사님께

서 각 학교의 돌로스를 중심으로 학교 심방을 하고 있다. 돌로스란 고등부 회원들이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현재 16개의 돌로스가 조직되어 있으며 올해안으로 49개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정선여고와 진선여고, 12일에는 청담고와 서울고, 13일에는 영화여고를 방문하여 돌로스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최원화 통신원)

청년2부

오는 6월 20일-29일에 청년2부 주관으로 중국 지역 단기선교(단기선교 중국1팀)를 실시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교의 비전을 위하여 성도들의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호영 통신원)

새가족부

매주일 교사기도회와 말씀 공부에 끝난 후 오전 10시 30분 새가족부 집회 장소인 갈릴리움에 들어서기 전이먼 어김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다나왔을까? 각반 표시 깃발 옆에 다 채워지지 않은 빈 자리가 있으면 가슴이 떨릴 것만 같다. 이렇게 낙심하기를 몇 번이며 가슴조이며 열려하고 걱정하기를 몇 번이었지만 늘상 같은 모양으로 지난 주 통화록 후 말실수나 아니했는지, 아니면 아프기라도 한 것이 아닌지 혹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익숙하지 못하여 갈등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극히 조심스레 다 두어야 할 귀한 유대국처럼, 그 태어난 것부터 아예 태어난 것이 물음과 같기는 마음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들에게 말기위 죄를 때가 었고 제 인듯 싶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마침 성령강림주일이었던 5월 31일 세례식이 행해지던 날 26주 중 22주 이상 축복한 9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은 끝났지만 이후로 예수님이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늘 지속되기를 새가족부 교

사들은 기도한다.

15교구

신록의 싱그러움과 상쾌한 공기, 고요한 들과 산의 풍경과는 다른 최상설로 겹겹이 처진 골, 철쭉장 소리와 함께 자갈밭을 열고 들어가는 최불이 맛부듯지는 총지 않은 소리, 창문마다 드리워진 창살들, 역겨운 냄새, 이곳이 인생의 신록들이 강하여 있는 곳 바로 신촌중학교(출천초년원)이다.

15교구 예스전도교회원 12명이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곳의 첫인상이다. 같이 예배드리며 오인숙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애, 웅성거리던 아이들은 조용해지며 야연으로 화답하고 김인식 목사님의 명쾌한 메시지에 그들의 눈은 빛났다. 떡볶이 한인소도 7명씩 들었음속애 여전히 고원들과 같이 교제해야 아이기하는 시간 후 각반으로 들어가는 성경 공부시간, 말씀을 찾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는 반, 기도록 아로 눈이 붓도록 울며 손바닥 가득히 아픈 이들을 적어놓고 중보기도 시간을 보내는 반, QT를 공부하는 반. 주어진 시간에 따라 아쉬운 각별을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직 활짝 피지 않은 잎에 달라 붙어 있는 해초처럼 그들에게 세워진 명애에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상한 심령이 우리를 삶애 마음에 전해져 와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한성정 통신원)

충현복지관

지난 5월 21일 과천 경마장 경마공원에서 열렸던 제12회 정선지체인 사생대회가 참가하여 충현복지관 후원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약 30명의 정선지체인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충현복지관 후원생 가운데서 은상 박준기씨를 포함해 동상 3명, 입선 8명 등 모두 12명의 후원생들이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여름행사 전망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98 충현의 여름 그의 나라를 세우는 특별한 기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농어촌전도대

7월초부터 8월말까지 각 교구와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에서 총 45개팀이 파송되는 농어촌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땅을 리는 봉사와 겸손하고 진지한 복음의 제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지역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대수련회

7월 2일부터 8월 15일에 걸쳐 총 11개 찬양대에서 실시하는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찬양대원들의 영성이 더욱 다듬어지고 주님안에서 하나님 지체들의 위아저를 통한 뜨거운 찬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6월 5일부터 8월 15일에 걸쳐 총 21개 교회학교에서 실시되는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회복과 영성의 세움이 바로게 세워지는 여름수련회, 예수님의 왕되심과 사랑으로 임하신 은총이 함께 확증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기선교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복음을 들고 의지로 나아갈 총 7개팀 70여명의 젊은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이 인도하시어 이들과 대하는 원주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충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 중 다수가 단기 및 중장기 선교 헌신자로 세워지는 은총을 행함을 수 있도록,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타올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몸과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더욱 강건한 영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 회 소 식

● 알림

1. 제직회 / 오는 찬양예배 후 분당에서 있습니다.
2. 단기(날)과 주일예배 / 오는 찬양예배시 분당에서 드립니다.
3. 교육국 지원 봉사자 모집 / 자원 봉사자실 문을 모집하고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분/아 / 전산 자료 입력
- 자/지 / PC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속과업임
- 인원 10명 - 기술: 교육국(주내 473-6)에

● 정보

1. 장로 회오재백기도회 / 10월(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전도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신교관 405호
3. 사역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사무국 회의실
4. 실업안도회 월례회 / 16일(월) 18:30, 관현홀
5. 주일 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부예배실
6. 실업안도회 목요기도회 / 18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안도회회실
7. 경찰전도회 월례회 / 오는 15:00, 관현홀
8. 교육국월례회 월례회 / 19일(금) 18:00, 교육국
9. 교육국연구소 월례회 / 19일(금) 20:00, 교육국연구소
10. 총현식적교회 월례회 / 오는 15:00, 신교관 404호
11. 안수집사회 부부 헌신연습 / 오는 15:30, 베다홀
12. 안수집사회 월요일기도회 / 19일(월) 23:00-24:00, 총현식적교회
13. 안수집사회 월요일기도회 성경공부 / 15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14.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17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예배실
1. 바. 물 1 / 20일(월) 19:00, 다보성
2. 바. 물 3 / 오는 15:00, 교육관 314호
3. 바. 물 5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4. 바. 물 9 / 19일(금) 18:00, 관현홀
5. 바. 물 10 / 20일(토) 18:00, 뉴욕리 풍전전당 (대현원 빌딩 뒤, 903-4415)

6. 베드로 6 / 21(다을 주일) 15:00, 복지관 지하1층
7. 베드로 8 / 20(월) 18:00, 교회 분수대 앞
8. 베드로 10 / 21(다을 주일) 19:00, 김장희 집사(938-8180)
9. 베드로 12 / 21(다을 주일) 교육국모임 후, 교육관 405호
10. 베드로 16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11. 요. 한 5 / 20(월) 19:00, 복지관
12. 요. 한 7 / 오는 19:00, 안성호 집사(428-5760)
13. 요. 한 14 / 21(다을 주일) 19:00, 복수복리(938-2516)
14. 한 나 1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15. 한 나 2 / 21(월) 11:00, 부회장
16. 한 나 3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관 314호
17. 한 나 4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18. 한 나 5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19. 한 나 6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복지관 지하1층
20. 한 나 9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관 414호
21. 한 나 10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분당 2층 수납개 앞
22. 한 나 12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관 212호
23. 한 나 14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만나홀
24. 한 나 16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25. 한 나 17 / 16일(월) 10:30, 주상공회 나루 (비오면 - 창구, 24-1802)
26. 예스다 6 / 21(다을 주일)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27. 예스다 11 / 오는 교육국모임 후, 매루가길
28. 예스다 14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관 201호
29. 루디아 1 / 15일(월) 10:30, 사랑부
30. 루디아 2 / 22일(월) 10:30, 교회 동문 경비실 앞 (비오면 - 관현홀)
31. 루디아 3 / 15일(월) 11:00, 교육관 109호
32. 루디아 4 / 18일(월) 11:00, 한기회 집사(583-3774)
33. 루디아 5 / 16일(월) 09:30, 서울연식 정통 대표소 일구
34. 루디아 9 / 16일(월) 10:00, 동구농 정문
35. 루디아 16 / 오는 교육국모임 후, 교육국모임장소 옆 108호
36. 루디아 17 / 19일(월) 11:00, 전진정 집사(942-70-136)
37. 루디아 1 / 16일(월) 10:30, 사랑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064	조용석	1	베드로	유상대(2)	1069	권영구	8	베드로		1074	황승량	19	청년1부	이병철(2)
1065	박예란	19	대학부	공경화(1)	1070	권순전	10	고등부		1075	장성준	19	청년1부	
1066	정순희	5	소망부		1071	방영호	11	청년1부		1076	문지연	19	대학부	송에스터(13)
1067	김혜린	8	청년1부	배종운(19)	1072	김희정	13	청년1부	나금순(13)					
1068	이승하	8	루디아	박윤석(6)	1073	정영아	19	대학부						

※총현식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알림

나를 볼드시는 주님

문 하 속(집사, 16교구)

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많이 핍박받을 때의 일이다. 예수 믿는 일로 많이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은 날 밤에는 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아닌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내게 있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은 나의 주님, 나의 절대자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의 종계를 향해 발걸음을 떼려오는 두려움에 안전불감증이 생겼다. 나의 나약함이, 정(正)함이 없지는 내 마음이 필경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혼신을 다해 주님께 매달려 부르짖었다. 나를 볼드어 주시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허공을 더듬어 주님의 손을 찾기도 하였다. 끝내는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교회의 차가운 마루 바닥이 얼마나 포근하게 느껴졌

었는지.
18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핍박하던 가족들은 이제 모두 성도가 되었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주님은 모든 고난중에 나를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죄로 주님 앞에서 수없이 쫓겨났어야 할 나의 모든 죄를 참고주시고 나를 볼드어 주셨다.
이제 내가 알고 고백하기는 내가 주님을 볼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볼드어 주신 것이다. 그토록 간절하던 처음 마음이 변해서 때로는 주님을 등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죄로 당장을 쳐 주님을 내몰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 뵈는 자들을 내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는 그분의 의지에 찬 사 람의 손으로 이 순간까지 이 계 연을 볼드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볼드어 주실 것이다.

38. 미리아 2 / 16일(월) 10:30, 김장희 집사(518-7850)
39. 미리아 5 / 16일(월) 10:30, 신봉가장부
40. 미리아 10 / 16일(월) 10:30, 박재정 권말(997-4089)
41. 미리아 11 / 오는 1부예배 후, 유아부
42. 미리아 12 / 16일(월) 10:30, 김장희 집사(303-8139)
43. 미리아 13 / 21(다을 주일) 1부예배 후, 관현홀
44. 미리아 14 / 21(다을 주일) 10:00, 한현준 집사(653-7091)
- 별 세
1. 변성준(변성정 성도, 이순영 집사의 아들, 제6교구) 정현영(정성고 집사, 최순자 집사의 딸, 제12교구) / 16일(월) 12:30 관현홀
2. 이재준(이병희 집사, 장부희 집사의 아들, 제9교구) 이주연(이수길 집사, 김현중 권사의 딸, 제19교구) / 18일(월) 12:30 관현홀
3. 양김권(권기찬 권사의 아들, 제11교구) 안희성(안희철 권, 이재희 집사의 딸) / 19일(금) 12:30 관현홀
- 별 세
1. 이기연(성도) 김기연(성도 시모, 제6교구 우성3구) / 5월 26일 월요일, 5월 28일 일요일
2. 박종신(성도) 이순진(성도 시모, 기린우 성도 시모, 제6교구 가락마루1구) / 3월 월요일, 5월 일요일
3. 윤재자(성도) 장남주(성도 시모, 박상현 집사 장모, 제6교구 땅이5구) / 4월 월요일, 6월 일요일
4. 강봉수(성도) 장남주(권사 아들, 윤남순 집사 남편, 강진수 성도, 제14교구 구로1구) / 6월 월요일, 8월 일요일
- 직장 전도반 소개
1. 송현정 장모 / (3481) 2001, 2002

경보기 부작 차량은 주차시에 경보기 작동을 해주시고 주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치랑관리부).

금주의기도제목

1. 김장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능여촌 및 낙도 전도대와 단기교포들께서 사역을 감당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전도비교를 가지고, 총현의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안에 거하며 그 복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장이 되게 하소서.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총현에서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있게 참여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6.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7. '98 전반기 장로 수련회를 통하여 당도전 권원이 영적 세 힘을 공급받고 더욱 충성하게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인도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현 김동석 김철수 권준호 김재철 이순수 정갑진 김태환 조현호 조희순 김동환 차병문 김태환 김인식 권상현 사영진 이승락 정혜성
- 협동목사 윤영택 박용우 노봉린
- 선교사 이준호 안철원 김영태
- 김도사 이은사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여전도사 최순복 정영희 현정남 정복진 장영자 임태주 김지혜 임태진 최희배 김의희 송향자 신동자 유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복자 김복자 박희자 김복자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박기진 열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현식 김장준 조재민 최진우 허유진
- 선교전도사 장창기 정영희 박태양
- 평신도전도사 유병세 김철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진

6월 21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 2부예배 트럼펫 안희현, 임시원 (할렐루야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 3부예배 클라리넷 박성호(할렐루야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 4부예배 트럼펫 박은희(하연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 5부예배 트럼펫 박은희(하연오케스트라) (찬양곡목)

비서직 · 전산직 직원 모집

1. 자격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를 받은 40세 미만의 남자
2. 근무지 (1) 비서직 - 0명
① 정무과장 졸업자
② PC 사용 가능자
③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산직 - 0명
① 전산 경력 3년 이상
② 상용 DB 숙련자
③ 4GL, JAVA 사용 경험자
※ 교회는 UNIX에서 INFORMIX 사용
3. 제출서류
① 자기소개서(사진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소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총현교회 사무국 주소: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교관 402